

‘어획(漁獲)’과 ‘어경(漁耕)’의 생태문화적 기반과

어업집단의 신화적 형상화

-조기잡이신화와 영등신화를 중심으로-

송기태*

<차례>

1. 서론 : 어업문명의 진화와 어로기원신화
2. 어로기원신화에 담긴 ‘어획(漁獲)’과 ‘어경(漁耕)’
 - 1) 서해안 조기잡이신화와 ‘어획(漁獲)’
 - 2) 제주도 영등신화와 ‘어경(漁耕)’
3. 어로기원신화의 생태문화적 기반과 형상화
 - 1) 어로기원신화의 전승과 생태문화적 기반
 - 2) 어업집단의 생업활동과 신화적 형상화
4. 결론

〈국문초록〉

바다의 문화는 오랫동안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어획(漁獲)’의 측면에 중점이 있었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양식기술이 도입되면서 바다도 육지처럼 경작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즉, ‘어경(漁耕)’의 공간이 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는 해조류와 패류의 양식장으로 빈틈이 없을 정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획과 어경의 문화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어로기원신화를 비교하였다.

먼저 바다의 문명사라는 관점에서 ‘어획’과 ‘어경’을 구분하고, 독자적으로 전승되고 연구되던 조기잡이신화와 영등신화를 비교하여 어로기원신화의 문명사적 위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07).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상과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의 문명기원신화를 농경기원신화와 동일시하는 내륙적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어업문명사적 관점에서 서해안의 조기잡이신화와 제주도의 영등신화는 ‘어획’과 ‘어경’을 대표하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어업문명의 전환은 근대어업과 양식업이 도입된 100여년 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어로기원신화에 생업현장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신화에 내재된 ‘경작하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조기잡이신화는 서해안의 어촌마을과 고기잡이 선원들에게 전하는 신화다. 조선시대 때 임경업이라는 장군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길에 식량이 떨어지자 갯벌에 가시나무를 꽂아 조기를 잡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조기잡이신화는 마을의 공동체 제의와 풍어제에서 구송되고 의례적으로 재현된다. 조기잡이신화는 어로기술의 변화에 적용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등신화는 영등할머니가 바다 건너에서 제주도로 오면서 농작물과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준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을 중심으로 의례와 신화가 전승되고, 풍어의례에서 바닷가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영등신화와 그 의례는 농경적 사고의 전이로 추정된다. 해안가의 해조류 채취와 패류 채취 과정이 경작관념과 경작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영등신화의 기본 토대는 농경에 있다고 보았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양식어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주제어 어획(漁獲), 어경(漁耕), 바다밭, 바다 경작, 어업문명, 어로기원신화, 조기잡이, 영등신앙, 영등, 양식어업, 영등신화

1. 서론

인류에게 생업기술의 발달과 변화는 문명의 전환으로 이어져왔다. 수

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삶의 토대가 되는 생업의 변화에 근거한다. 인류의 문명 전환에서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이행은 혁명적인 사건으로서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화였다. 물론 이런 진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당대 인류가 그것을 획기적인 변화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¹⁾ 문명사의 흐름에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수렵채집인은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것만을 취할 뿐이지만 농경인은 식량 자급을 위해서 자연과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농사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며, 농부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식량은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²⁾ 경작으로 인한 잉여 식량의 발생은 저장과 운반을 가능케 하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 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 되고 경제적으로 복잡해지고 기술적 혁신을 동반한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 선행조건이 되었다.³⁾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이행은 인류의 삶의 근간이 변동하는 문명사적 전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화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주도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처럼 농경신에 대한 독자적 서사가 전하기도 하고, <동명왕편>의 유하와 주몽처럼 건국신화와 결합되거나, 제주도 <삼성신화>처럼 성씨기원신화에 결합된 화소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들 신화는 주로 농경의 시작을 담고 있는 문명기원신화로서 인류 문명의 진

1) 콜린 텃지 저, 김상인 역, 『에텐의 종말』(다윈의 대답3), 이음, 2011, 15~28면. 『에텐의 종말』을 통해 농경의 시작이 인류에게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수렵채집과 농경 사이의 ‘원시농사의 기간과 의미에 대해 기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콜린 텃지 저, 김상인 역, 『에텐의 종말』(다윈의 대답3), 이음, 2011, 51면.

3) 제레드 다이아몬드 저, 김진준 역, 『총, 균, 쇠』, 문학사상사, 2012, 117~127면.

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천상에서 곡물을 받아 농경신으로 좌정하고, <동명왕편>의 주몽이 유하로부터 곡물을 수여받고, <삼성신화>에서 바다 건너의 여인들이 곡물과 함께 들어와 농경이 시작되는데, 이들 신화의 초점은 내륙의 농경기원으로 일관된다.

문명의 진화에서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을 첫 변곡점으로 삼는 게 일반적인데, 이는 육지에 국한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육지이고 문명사의 진행이 정착과 경작을 토대로 이루어졌지만, 해양의 문명사는 육지와 사뭇 다른 길을 걸어왔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땅과 바다에서 모두 수렵과 포획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경작이 시작된 시기는 각각 다르며 동시적이지 않다. 육지에서 경작은 '심고 - 길러서 - 수확'하는 핵심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파종이나 심기, 기르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육지와 해양은 생업 기술의 차이로 인해 동등한 문명진화의 길을 걷지 못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해양 문명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양식어업이 시작되었는데, 불과 100여년이 지난 지금 서해와 남해의 바다는 온통 양식장으로 변모한 상태다. 드넓은 해안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를 살펴보면 온통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경작의 공간으로 변모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가 수렵에서 목축과 농경을 거쳐 산업시대마저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지만, 어업은 여전히 수렵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업에서 핵심이 '심고 길러서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 반면, 어업은 기본적으로 심고 기르는 과정이 없이 수확하는 과정만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양식어업이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본격적인 바다 경작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즉, 어촌에서도 심고 기르는

과정이 도입되면서 예측 가능한 경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⁴⁾

해양 문명은 오랫동안 어획(漁獲)의 시대에 머물러있었고, 어경(漁耕)으로의 진화⁵⁾는 근대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신화에는 어획과 어경의 개념이 공존한다. 특히 서해안 일대에서 전승되는 조기잡이신화는 조기잡이의 기원을 담고 있고,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영등신화는 씨뿌림이라는 경작의 기원을 담고 있다. 그간 영등신화와 조기잡이신화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서 논의되지 않았다. 영등신화는 주로 신의 기능과 의례의 양상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특히 영등이 내방신의 모습을 취하는 것과 바람과 비를 몰고 오는 풍신과 우신의 기능을 지닌 점, 어업과 농업의 생산신으로서 기능하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⁶⁾ 조기잡이신화의 경우, 임경업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조기잡이의 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과 함께 풍어의례의 양상에 대해 논의되었다.⁷⁾ 그리고 영등신

-
- 4) 송기태, 『양식어업에 따른 생태인지체계의 확장과 ‘해산물 부르기’ 의례의 진화』, 『도서문화』 3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1, 293~294면.
 - 5) 어획과 어경의 문명사적 단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송기태, 『어경(漁耕)의 시대, 바다 경작의 단계와 전망』, 『민속연구』 25,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2.
 - 6) 허순애, 『바람과 제주도 영등신앙』, 『제주도연구』 33, 제주학회, 2010; 김재호, 『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문무병, 『제주도의 영등굿』,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1, 한국민속학회, 1969; 황루시, 『제주영등굿』, 『한국인의 굿과 무당』, 문음사, 1998.
 - 7) 홍태한, 『서해안 풍어굿의 양상과 특징』, 『도서문화』 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 최윤영, 『서해안 배연신굿의 연행양상』, 『한국극예술연구』 28, 한국극예술학회, 2008; 서종원,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홍태한, 『설화와 민간신앙에서의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 - 남이 장군과 임경업 장군의 경우 -』, 『한국민속학보』 3, 한국민속학회, 1994; 주강현, 『서해안 고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 - 어업생산력과 임경업 신격화 문제를 중심으로 -』, 『역사민속학』 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화나 조기잡이신화와 관련되지 않지만, 농경기원으로서 세경본풀이나 주몽신화 등에 대한 주목이 있었다.⁸⁾ 필자는 이 논문에서 영등신화와 조기잡이신화를 어로기원신화로서 같은 범주에 놓고 비교하고, 어업문명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그 생업전통에 기반한 실제적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어로기원신화에 담긴 ‘어획(漁獲)’과 ‘어경(漁耕)’

1) 서해안 조기잡이신화와 ‘어획(漁獲)’

한반도의 고기잡이는 지역의 대표적인 어종을 중심으로 권역적인 양상을 띤다. 서해의 대표어종은 조기이고 남해는 멸치, 동해는 명태가 대표어종이다. 서해의 조기는 동해안과 남해안의 어선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선들까지 경쟁적으로 잡는 어종이다. 조기의 경제성이 뛰어나서 조기 회유로를 따라 파시(波市)가 형성되었다. 조기잡이 어장은 조기의 회유로에 따라 조도어장권, 흑산어장권, 녹도어장권, 연평어장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장의 형성에 따라 어선과 객주, 상점, 요리집 등이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파시촌이 형성될 정도였다.⁹⁾

8)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김기호, 『신화에 나타난 곡모신 모티프의 성격과 고대 한국 농경문화의 기원』, 『한국사상과 문화』 2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김종대, 『<주몽신화>의 유희 행동을 통해 본 문화변화양상에 대한 일고』, 『우리문학연구』 33, 우리문학학회, 2011;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강진옥, 『동아시아 농경 및 곡물기원 신화와 문화영웅의 존재양상』, 『구비문학연구』 21,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권태효, 『한국 생산물기원신화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9) 김준, 『조기파시의 기억과 기록』, 『서해와 조기』, 경인문화사, 2008. 파시(波市)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부터인데, 『조선왕조실록』의 파시평(波市坪)은 어장을 의미하고,

조기잡이는 경제성 있는 어종의 고기잡이에 그치지 않고 조기잡이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조기 어장의 형성에 따라 전국 각지의 어선들이 모여 들고 이들이 어로문화를 공유하였다. 조기잡이의 풍어를 이루었을 때 부르는 배치기소리가 황해도부터 경남지역까지 분포¹⁰⁾하는 것은 이러한 조기잡이문화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서해의 조기잡이문화권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임경업장군 신앙의 분포를 들 수 있다.

서해안지역에서는 임경업장군이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임경업장군을 마을의 당신(堂神)으로 모시는 지역도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임경업장군의 이야기는 당신화로서 전승되는데, 대개 임경업 장군이 서해를 통해 중국으로 싸움을 가는 과정에서 섬에 들러 조기잡이를 가르쳐주었다는 내용이다. 조기잡이를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조기잡이의 신으로 추앙하여 모시는 것이다. 구전되는 이야기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당이란 건. 왜 임경업 장군을 모셨는가 그러면은 옛날에 연평도인가에서 군대들을 해가지고 인제 중국에 침략. 방어를 한다. 그럴 때. 먹고 살 것이, 군량이 부족하니깐 막 가지 돌친 나무를 갖다 쫓아 놓으니까. 그때는 하도 고기가 많으니까 그 가지에 고기가 찢렸다. 찢어서 그 놈을 잡았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군대를 먹여 살렸다. 그런 것 때문에 임경업 장군을 그렇게 섬 사람들은. 어선.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은 임경업 장군을 그런 의미에서 모시지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고, 그 사진이. 중간에 동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자기 나름대로 그러서 놓았어요. 그게 아주 낡았어요.¹¹⁾

일제강점기 후의 파시(波市)는 어장 근처에 일시적인 시장과 취락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10) 이경엽, 『서해안의 배치기소리와 조기잡이의 상관성』, 『한국민요학』15, 한국민요학회, 2004.

11) 신종원 외, 『한국 해양 및 도서 신앙의 민속과 설화 (현지조사 2 - 서해안)』, 장보고

위의 이야기는 전북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에서 구전되는 당신화이다.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경업 장군이 가시나무로 조기를 잡게 한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조기잡이의 신으로서 모시고 있다. 이러한 임경업의 조기잡이신화는 전북과 충남, 경기, 황해도 일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구전설화 중에서 공통적으로 전승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 ① 임경업장군이 중국으로 싸움을 하기 위해 병사들과 배로 이동하다가 섬에 머무르게 된다.
- ② 이때 병사들이 싸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를 부리거나 저항한다.
- ③ 병사들의 식량 및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시가 있는 나무로 조기를 잡게 한다.
- ④ 임경업장군의 영웅적 위력에 감복하고, 이후 조기잡이의 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조기잡이의 신으로서 임경업 장군 신앙의 중심지는 연평도와 경기·충청지역이다. 연평도는 조기잡이 ‘매카’로서 대대적인 파시가 형성되던 곳으로 임경업 신앙이 전국적 분포와 확산을 이루게 된 ‘임경업신앙’의 진원지다.¹³⁾ 비록 1970~8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기잡이와 같은 생업활동은 물론 당제나 연신굿 등의 의례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서해안 일대에서 임경업 장군의 위상과 그의 좌정 내력에 해당하는 조기잡이 신화는 어민

기념사업회, 2006, 406~407면.

12) 주장현, 『서해안 고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 - 어업생산력과 임경업 신격화 문제를 중심으로 -』, 『역사민속학』 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105~106면. 주장현이 파악한 임경업 장군의 조기잡이신화에 나타난 공통점을 간략히 파악한 것이다.

13) 『한국의 해양문화 - 서해해역 下』, 해양수산부, 2002, 403면.

들의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임경업 장군이 조기잡이 방법을 고안한 것이 신격화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그로 인해 해안 마을의 당신(堂神)으로 좌정하거나 무속신격으로 배향되고 조기잡이를 상징하는 의례가 베풀어진다. 신화와 함께 그것을 상징하는 의례의 베풀은 ‘신화의 의례적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축제나 전례의 시간은 모두 신화적 과거인 ‘태초에’ 생겨난 성스러운 사건의 재현”¹⁴⁾을 의미한다. 의례의 시간에는 일상에서 비일상의 시간으로 진입하고, 신화가 축제의 공간을 통해 과거가 아닌 현재적 사건으로 재현된다. 신화가 의례의 공간에서 재현됨으로 인해 신화의 생명력이 유지되는데, 임경업 장군에 대한 의례에서도 신화의 상징적인 장면이 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임경업장군을 당신앙으로 추앙하는 어촌에서는 의례 과정에서 배치기 소리를 연행한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 창리마을 영신제에서는 정월 초사흘날 제관과 무당을 비롯한 제의 주관자들이 행렬을 이루어 당으로 오르는데, 이때부터 당제를 모시는 중간중간 놀이판 마다 온통 배치기소리를 가창한다.¹⁵⁾ 배치기소리는 조기잡이 과정에서 불리는 소리로서 ‘눗소리-그물당기는 소리-고기푸는 소리-배치기소리’의 과정¹⁶⁾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다. 눗소리는 노를 저을 때 부르는 노래이고, 그물당기는 소리는 배에서 그물을 당길 때 부르는 노래다. 고기푸는 소리는 그물에 잡힌 고기를 퍼올리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배치기소리는 만선과 풍어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14) M엘리아테 저, 이은복 역, 『성과 속』, 한길사, 2005, 89면.

15) 2006년 정월 서산 창리 영신제 현장조사.

16) 이경업, 『서해안 배치기소리와 조기잡이의 상관성』,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231~232면.

황해도의 대표적 풍어굿(뱃굿)인 배연신굿에서는 굿거리마다 조기잡이를 기원하는 대목이 연출된다. 소당제석거리에서 무당은 제일 큰 조기를 들어 물동이에 넣은 다음 뱃사람들이 조기머리가 놓인 방향으로 고기잡이를 나가면 장원할 것이라고 점을 친다. 무당은 ‘영산 할아범·할맘 굿’거리에서 그물 올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물을 퍼서 바닷물에 넣었다가 고기를 퍼서 배에다 싣는 시늉을 한 다음 배치기 소리를 부른다. ‘송겨주는 굿’에서는 뱃사람들이 긴 무명을 양쪽에서 붙잡고 떡을 담아 송겨를 섬기면 뱃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으며 선원과 선주가 옷자락을 벌려 복떡(고기로 간주함)을 받아간다. 이와 같이 배연신굿은 철저하게 임경업장군과 조기잡이에 관련된 생산의례로 연행된다.¹⁷⁾

이러한 서해안지역 조기잡이신화와 의례는 ‘어획’과 ‘어경’으로 구분되는 바다 문명의 영역 중에서 ‘어획’의 영역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경업장군의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임경업장군이 가시나무를 꺾어서 조기를 잡게 해준 데 있다. 임경업 장군이 장군으로서 영웅적인 행위를 하거나, 민중이 기억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신으로 추앙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신화적 사건이 실제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경업 장군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신화적 자리매김은 ‘조기잡이의 신’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임경업장군 신화는 고기를 잡는 행위인 ‘어획’에 초점이 있다. 만약 경작을 기반으로 한 ‘어경’에 초점이 있다면 임경업장군이 조기가 회유하는 길을 알게 하고 알을 산란하는 데 장소를 제공하거나, 어린 치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화에 나타난 임경업의 영웅적 위상과 역할은 조기가 산란하고 성장하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몰려드는 조기를 잡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있다.

17) 『한국의 해양문화 - 서해해역 下』, 해양수산부, 2002, 428면.

당곳이나 풍어곳에서 행해지는 조기잡이의 모의적 재현 과정도 그물로 조기를 잡거나 퍼올리고,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조기잡이의 전체 과정이 담겨있다. 신화와 마찬가지로 의례에서도 조기의 산란이나 생육에 대한 인지나 개입은 드러나지 않고, 조기의 포획에만 주목한다. 육지의 상황으로 보면 어업에서의 모의적 행위가 별다른 것이 아닐 수 있다. 내륙에서도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모의경작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업의 문명사적 단계가 농경과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지의 경우 수천 년 전에 이미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모의경작이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어업에 있어서는 ‘어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불과 100여년 전부터 본격적인 ‘어경’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문명사적으로 많은 차이를 지닌다. 정리하면, 조기잡이의 신화와 의례는 바다의 어로활동 중에서 포획에 초점을 두는 ‘어획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2) 제주도 영등신화와 ‘어경(漁耕)’

영등은 음력 2월에 내방하는 신으로서 바람과 물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전체에서 전승되는데, 신앙과 의례의 집중도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도가 가장 핵심지역이고 남안을 거쳐 서해안, 다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새를 취한다.¹⁸⁾ 영등신앙의 전승력이 가장 왕성한 곳이 제주도다. 제주도의 경우 어민들의 신앙생활로서 의례가 왕성하게 전승될 뿐만 아니라 영등신화의 서사구조도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의 영등신화는 이야기로도 전승되고, 무가로도 가창된다. 이야기는 ‘어민이 외눈배기섬에 표착했다가 영등의 도움으로 풀려나는데, 영

18) 김재호, 『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60~68면.

등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에 죽게 된다'는 내용으로 어업과 구체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다. 어업의 관련성은 무가와 속신으로 전한다. 본고에서는 '어로기원신화'라는 점에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무가를 통해 구현되는 영등신화를 주목한다.

해로 금년 무신년 시절입고, 윤삭(閏朔) 열석들은 보난(보니) 영등이월
 열사흘날, 강남천자국서 산 구경 물 구경 제주도 오실적의 돛백꽃(冬柏꽃)
 복송갯꽃(桃花) 구경 올 적에 천초(天草) 메역(미역) 고동(소라) 생복 우미
 (우무) 전각씨(種子), 세경넙은드르(넓은 밭) 열두시만국(十二新萬穀 = 모
 든 곡식의 뜻) 씨를 가져 주저 허여 영등하르바님 영등할망 영등자수(座首)
 영등벨감(別監) 영등우장(戶長의 雨裝에의 類推) 영등호장 일곱에기단마
 실청(자식인 일곱 아기) 거느려 오저하시는데, 오늘은 제주도 조천면 북촌
 막을 상불턱(상급 해녀들이 불을 피워 쪼이는 곳) 상즈녀(潛女 = 해녀) 중불
 턱 중즈녀 하불턱 하즈녀, 상선(上船) 운뵤선(運搬船) 발동기(發動機船) 최
 각선 모도 일만즈수털 어부 되신 어른덜, 오늘 영등대왕 영등우장 오시는데,
 뱃것들론(바깥으로는) 터진 생기지방(生氣之方)으로 삼천뱃대(三千兵馬
 竿 = 큰곳 때 세우는 큰 대) 일만초깃발 기초발입(旗幟發立)하시저 하시는
 디 천지월덕기(天地月德旗)로 신수푸저 홉네다.¹⁹⁾

위는 제주도 영등곳에서 심방이 큰대를 세우며 부르는 사설로서 영등의 노정기라고 할 수 있다. 영등곳의 무가에서는 영등이 강남천자국에서 제주도로 올 때 천초, 미역, 소라, 전복, 우무, 곡식종자 등을 가지고 온다. 영등이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와 패류의 씨앗을 가지고 오고, 육지의 곡식 씨앗을 가지고 오는 점에서 농업과 어업의 신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러

19)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60면.

20)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61면.

한 영등굿에서는 신화적 사건과 유사한 <씨드림>의 절차가 연행된다.

영등할마님 영등하르바님 영등우장 영등자수님 영등벨감 영등호장님네 산구경 물구경 오랏수다. 오늘 영등돌 열사을날 손맞이 받고 날(來日)은 산지(山地) 칠머리 반곡 대보름날 소섬 진짚깎으로 베(船) 놓아 가져 흐시는디, 영등할마님 영등하르바님 영등자수 영등벨감 영등우장 영등호장님네가 천초 메역 씨 쥐뉝갑서. 고동 생복 쥐뉝 갑서. 세경너브드르 열두곡(十二穀) 시만국(新萬穀) 쥐뉝 갑서. 할라 니줄 불러다가 성방상주 이방상주 놀던 무등내기 불러다 금놀이 매놀이 하자. 그리말고 뒷개(北村) 다려믄를 괴기씨 (樂. 5,60대의 노부녀들 7, 8명이 『밀방탱이』에 줍씨를 넣어 어깨에 메고 요란한 장단에 맞추어 광적인 춤을 추다가 바닷가 방파제로 달려감. 뒤에 소미들이 북과 징을 요란하게 치며 뒤따름. 노부녀들은 방파제 건너 바다에 들어서서 줍씨를 창과 위에 뿌리며)

줍씨 드렵수다. 메역씨 드렵수다. 고동 생복씨 드렵수다. 우리 일만 즈수 북촌 해녀덜 살게 허여줍서 어~.²¹⁾

제주도 영등굿에서는 <씨드림> 절차에서 바다에 해산물 씨앗을 파종하는 모의행위를 하고, 이어서 바로 <씨집> 절차를 통해 수확과 관련된 점을 친다. 영등신화의 영등이 바다 멀리 강남천자국에서 제주도로 각종 해산물 씨앗과 곡물 씨앗을 가져오거나 뿌리는데, 의례에서 모의행위를 통해 해산물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다.

<씨드림·씨집>의 절차는 영등굿 뿐만 아니라 잠수굿에서도 행해지고,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다. 제주시 동김녕마을의 사례에서는 씨드림을 하기 위해 2명의 해녀를 선정하여 줍씨가 담긴 바구니를 건네준다. 심방의 무가에 맞춰 해녀들과 함께 춤을 추다가 두 해녀가 바닷

2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538~539면.

가를 향해 달려간다. 두 해녀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달려가면서 해안가 곳곳에 좁쌀을 뿌리고 다닌다. 해안가 곳곳을 다니면서 뿌린 후 굶청으로 들어와서 굶청 가운데 돛자리 위에 남은 좁쌀을 뿌린다. 심방이 “동경국들에 서경국들에 씨 뿌리자. 서경국에서 동경국들에 씨 뿌리자. 뿌립서.”라고 하면 두 해녀가 돛자리에 좁쌀을 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심방이 “전복씨, 구쟁이씨, 오분제기 보만씨, 뭇개, 해삼, 성개, 손, 고장뿔, 우미, 전각, 툄, 매역씨, 바당에 각제개 고두리, 우럭, 멧치, 한치, 황돔, 히라쭈, 다금바리 …”²²⁾ 등등 각각의 해산물을 언급하고, 그때마다 해녀 둘이서 좁쌀을 뿌린다. 이렇게 해서 좁쌀을 다 뿌리면 심방이 좁쌀이 뿌려진 상황을 살피면서 씨점을 친다.

영등신화와 의례에서 초점을 두는 ‘씨앗’의 존재는 바다에서의 기술과 문명이 경작에 진입했음을 신화와 의례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 경작의 대표적 형태인 양식어업은 그 자체로는 기술의 발달이지만, 어업문명사적으로는 커다란 변화에 해당한다. 육지의 생업 변화를 예로 들면,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렵채집사회에서 인간은 야생의 짐승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하는 데 그쳤지만, 농경사회는 파종-관리-수확의 3단계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도 기존에는 ‘자연이 길러준 해산물’을 수확하여 소비하다가, 본격적인 양식어업이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바다에 대한 인간의 제어가 시작되었다. 어촌의 주민들이 바다를 ‘수확만 하는 공간’에서 ‘심고 - 기르고 - 수확’하는 경작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변모시킨 것이다.²³⁾

22) 2009년 4월 3일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잠수굿 조사. 조사자 : 나경수, 이경엽, 강정식, 강소전, 송기태 외 다수.

23) 송기태, 『양식어업에 따른 생태인지체계의 확장과 ‘해산물 부르기’ 의례의 진화 - 전남 남해안지역 갯제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1, 303면.

영등굿의 모의경작은 내륙에서 이미 보편화된 의례와 놀이로 정착해 있다. 농가의 내농작은 지역에 따라 벧가랏대 세우기, 모의 농작물 타작, 모의 벼베기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가상의 모 의농경으로서 예측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궁중에서도 농가의 내 농작에 영향을 받은 궁중 내농작도 연행되었다.²⁴⁾ 이렇듯 내륙에서는 농사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고, 궁중에서 모의농경을 진행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이런 모의농경의 기저에는 실제 삶의 근간이 농경에 있었던 배경이 있다.

제주도의 영등신화에서 등장하는 해산물의 씨앗과 의례 과정에서 모의 적으로 해산물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바다 해안가를 경작지로 생각하는 사고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등신화와 의례에서 나타난 경작행위는 갯벌과 해안을 ‘바다밭’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관련되어 ‘바다 경작’에 대한 관념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즉, 바다 문명의 경작 단계를 담아낸 ‘어경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영등신화에 담긴 ‘어경’이 실제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담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3. 어로기원신화의 생태문화적 기반과 형상화

1) 어로기원신화의 전승과 생태문화적 기반

임경업장군의 조기잡이신화와 제주도의 영등신화는 어로기원신화로서

24) 배영동, 「궁중 내농작과 농가 내농작의 의미와 기능 - 궁중풍속과 민속의 관계를 생각하며-」,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공통점을 갖지만, ‘어획’과 ‘어경’의 문명적 차이를 담고 있어서 그 차이가 강하게 부각된다. 조기잡이신화에서는 고기를 잡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의례에서도 그물을 넣어 고기를 잡아들이는 행위로 이어지고, 영등신화에서는 해산물의 씨앗을 파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의례에서도 <씨드림>의 연행으로 나타난다.

조기잡이신화와 영등신화는 어업관련 의례와 결합되어 주기적으로 재생되면서 전승력을 유지하고 있다. 조기잡이신화는 충청·경기지역의 풍어의례의 기반이 되고, 영등신화는 제주도지역 풍어의례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두 신화가 서로 다른 문명을 담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두 신화가 전제하는 어업의 생태적 기반이 다르고, 신화 전승집단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신화에 나타난 ‘어획’과 ‘어경’의 차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어업을 행하고 신화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신화의 배경이 되는 생태적 기반과 신화전승집단이 갖는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조기잡이신화와 영등신화의 생업기반 비교

조기잡이신화	이동성이 강한 회유성 어종	남성	어선어업	전업어업
영등신화	이동성이 약한 해조류와 패류	여성	잠수어업	겸업어업

조기잡이신화의 대상이 되는 참조기는 회유성 어족으로 제주도와 동중국해 사이에서 월동을 하고, 흑산도를 거쳐 3~4월에 칠산도와 연평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산란한다. 조기는 연안성 어류로 수심 40~200m의 바닥이 모래나 빨린 해역에서 서식한다. 암수 모두 2세어(몸길이 17cm 이상)가 되면 산란을 시작한다. 산란기는 3~6월이며, 산란장은 한국의 서해안 칠산과 연평지역지역, 중국 래주만, 발해만, 요동만 등이다. 칠산이나

연평지역은 해저 모래등인 사구가 발달하였고, 육지에서 민물이 유입되고 풍부한 영양물질이 유입되는 최적의 어류 산란장이다.²⁵⁾

참조기의 생태적 특징은 산란기에 해안가로 회유를 하는 점이다. 조기는 산란을 위해 칠산과 연평바다로 회유하는 어종이고, 어부들은 그 시기에 칠산어장과 연평어장으로 이동해오는 조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잡는다. 조기는 지금도 알을 밴 상태에서 회유하는 것을 잡는다. 그 이유는 조기가 산란을 위해 어군을 형성해 이동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산란을 마친 후에는 어군을 해체해버려서 잡기가 쉽지 않다. 즉, 조기가 회유를 해서 산란을 해야 치어들이 성장해서 다시 회유를 반복하지만, 조기를 잡을 때는 산란을 하기 전에 잡아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조기잡이는 남성들의 일이다. 과거 전통시대에는 여성들이 배를 타는 것조차 금기시했기 때문에 조기잡이를 비롯한 모든 고기잡이는 남성들의 일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대형 어선에서 여성 선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근래에 들어 부부 단위의 소규모 어업이 활성화되었지만, 어선어업의 주체는 남성이 주를 이룬다. 갯벌에 살(밭)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것도 주로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어선어업이나 망어업 전반에서 남자의 역할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임경업장군을 신격화하여 모시고 신화의 의례를 전승하는 지역은 서해안의 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마을에서 제를 지낼 때 비용을 추렴하는 사람은 대개 선주들이다.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의 안섬 당제는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

25) 나승만, 『조기잡이 닻배어로의 변영과 쇠퇴』,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268~269면.

<한국수산해양정보포털> <http://portal.nfrdi.re.kr/>

로 경비를 모았다. 중선배를 가진 선주만도 40여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경비 마련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선주들은 배의 크기나 정성에 따라서 헌금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선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소형선박의 선주들보다 많은 돈을 내놓았다.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정성껏 성의를 표시하였다.²⁶⁾

위의 내용은 임경업장군을 당신(堂神)의 하나로 모시고 있는 충남 당진 안섬마을의 당제에서 비용을 추렴하는 내용이다. 마을에서 당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과 음식준비, 무당과 약사에 대한 비용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경비의 주축을 선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섬마을에서는 과거 안강만 어선들이 개별적으로 연평도까지 가서 임경업 장군신 당맞이를 했었다.²⁷⁾ 선주나 선원들이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제가 풍어의례로서 기능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촌의 의례와 어업 활동의 주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영등신화에서 언급되는 해산물은 주로 천초(우뭇가사리), 미역, 소라, 생복(전복) 등이다. 천초와 미역은 해조류이고, 소라와 전복은 패류에 해당한다. 천초와 미역 등의 해조류는 주로 음력 3월부터 6월 사이에 채취하고, 소라는 음력 10월부터 5월, 전복은 겨울 산란기를 제외한 음력 3월부터 8월 사이에 채취한다.²⁸⁾ 해조류로는 과거에는 미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천초와 툇이 주를 이룬다.

해조류와 패류는 어류에 비해 이동성이 약하다. 미역이나 천초, 김 등

26) 박종익,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섬 당제의 실상과 활로 모색』,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90~91면.

27) 이인화, 「당진 안섬 풍어굿의 연행 내용과 의미」,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335~336면.

28) 좌혜경·권미선,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 제주학회, 2009, 7~8면.

의 해조류는 자연산 포자가 부유하다가 해안가 암석에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이동하지 않는다. 전복과 소라 등의 패류는 이동할 수는 있지만, 바다 속 유영과 이동이 제한적이다. 제주 해녀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전복의 경우, 대개 2월의 수심 25m 층의 12°C되는 등온선을 경계로 북쪽은 한류계(참전복), 남쪽은 난류계(말전복, 까막전복, 시볼트전복, 오분자기) 전복이 분포하는데, 제주의 전복은 남쪽의 난류계에 속한다.²⁹⁾

제주도 어업활동에서 해조류와 패류의 채취는 해녀들이 담당한다. 그리고 영등굿 과정에서도 패류와 해조류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어류는 배제되거나 주요 어종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신화와 의례에서 구체적인 어종이 언급되는 것은 실제 생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신화와 의례, 어업의 전승주체가 해녀라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영등굿은 잠수회원들이 50원씩 거출한 자금으로 공동 축원용 도제상(都祭床)의 제물을 준비하고 심방의 보수 등 경비를 써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영등굿을 ‘해녀굿’ 또는 ‘잠수굿’이라 하며, 잠수회 간부들이 굿 전날 회장집에 모여 제물을 마련한다. 미신타파 시책으로 당굿을 못하게 면사무소에서 막으니 과세문안제는 간단한 축원으로 넘겼지만, 영등굿은 우리들의 굿이니 아무래도 크게 해야 하겠다고 시루떡을 찌고, 돌래떡을 만들고 부산히 하는 것이었다.³⁰⁾

영등굿의 전반적인 행사는 해녀들이 주관한다. 영등굿을 ‘해녀굿’이나 ‘잠수굿’이라고도 하여 해녀들의 행사라는 점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

29)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 <http://portal.nfrdi.re.kr/>. 아래의 표 내용을 포함하여 전복의 생물적 특징에 대해 참고함.

30)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66~67면.

다. 과거 미신타과 정책이 시행될 때 당곳을 간단히 진행하더라도 영등굿 만큼은 성대하게 치루려고 했는데 이 또한 해녀들의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등신화의 전승주체는 해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신화의 생태적 기반과 전승주체의 차이가 어업문명의 생태문화적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비교되는 것은 어종의 차이이다. 어종별로 각각의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도 그에 따라 생태인지를 발달시키고 적절한 조업활동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어종의 차이가 어로문화의 생태문화적 특징을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민들의 생태인지라는 측면에서 어종의 차이를 접근해본다.

조기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조기가 봄철에 회유해오는 동안에만 조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조류와 패류는 정착성이 강하고 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조기잡이의 경우 조기가 회유하는 시기에 유일하게 어종의 실체를 확인하고 어획을 한다. 따라서 어부들이 조기의 생태를 이해하는 시간은 오로지 어획기로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해조류와 패류의 경우 해안가에서 표착하거나 정착하기 때문에 싹을 틔울 때부터 성장기까지의 생태를 확인 가능하다. 특히 해녀들의 경우 잠수를 해서 해조류와 패류를 채취하기 때문에 해당 어종의 생태를 누구보다도 잘 인지할 수 있다.

비교하면 조기의 경우 어부들은 어획을 할 때에만 그 생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해조류와 패류는 해녀들이 새싹과 치패일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전반의 생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생태인지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신화와 의례에 담긴 ‘어획’과 ‘어경’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기의 경우 어민들의 생태인지가 포획에 한정되어 있는데 신화의 세

계에서도 이런 국면이 드러난다. 임경업장군의 영웅적 위상도 조기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민들과 조기가 대면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조기잡이 신화가 무가로 구송될 때 역시 조기 포획을 중심으로 굿이 연행되며 조기의 성장과 산란에 대한 생태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본당 장군님 모셔 실고 연평바다로 돈 실어갑시다.
임경업 장군님 귀히 보시어 선주 불러 도장원 줍시다.
연평바다 널린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 실어라.³¹⁾

무가에 나타난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간다’는 표현은 조기잡이와 관련된 민요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대목이다. 바다에 조기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주워 담으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든 언급이 포획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는 조기에 대한 어업집단의 생업활동과 생태인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등신화에서 영등이 해조류와 패류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거나 뿌린다는 사실은 해녀들이 인지하는 바다의 생태 속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해조류는 제자리에서 싹을 틔워 성장을 하는 종이고, 패류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치패일 때부터 성패가 될 때까지 해안가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종이다. 이것은 해조류와 패류의 생애주기가 인간에게 인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경작관념이 대입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실제로 제주도를 비롯한 자연산 해조류를 채취하는 한반도 해안지역에

31) 김금화, 『김금화 무가집』, 문음사, 1995, 221면(홍태한, 『서해안 풍어굿의 양상과 특징』, 『도서문화』 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6, 594면에서 재인용).

서는 ‘갯뒹이’라는 공동노동이 행해진다. 갯뒹이는 미역이나 툇 등의 포자가 바위에 착상하기 쉽도록 갯바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갯뒹이는 육지의 농경지에서 파종하기 전에 진행되는 개간의 과정과 닮아있다. 갯뒹이를 해서 해조류가 바다밭에 제대로 착상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도 해녀회에서는 공동일로 ‘소라 옮기기’³²⁾를 행한다. 소라 옮기기는 해안가에 붙어있는 소라씨(소라 치패)를 모아서 해녀들이 조업하는 구역으로 던져넣는 것으로, 낚시꾼이나 외부인이 소라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행위는 외부로부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어업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소라씨를 자신들의 바다밭에 뿌리고 이식하여 키우는 경작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등신화에 ‘해산물의 씨앗’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영등곳에서 <씨드림> 등이 진행되는 것도 ‘바다밭’에 대한 어업집단의 생태인지와 어경이라는 경작 관념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어업집단의 생업활동과 신화적 형상화

조기잡이신화와 영등신화에는 어민들의 생업전선에서의 일상이 반영되어 있다. 어업집단이 전승해온 어로기원신화의 기본적인 서사와 골격은 유지되면서 한편으로 현실세계의 생업 변화상과 그 국면들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임경업 장군의 조기잡이신화는 일반적으로 가시가 달린 나무를 갯벌에 꽂아서 조기를 잡는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시가 달린 나무로 조기를 잡을 수 없다. 가장 현실적인 어구로는 주벽(주목망)이나 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주벽은 주목망(柱木網)이라고 하는 어구로서

32)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 출판부, 2008, 185~18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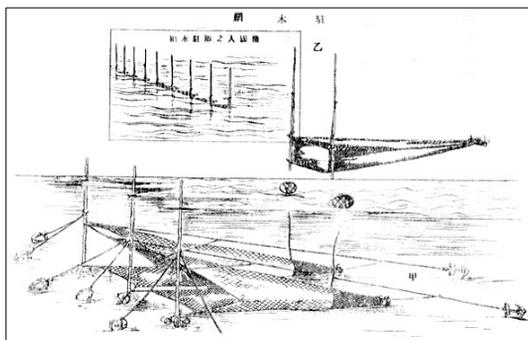
갯벌에 길게 말뚝을 박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달아 맨 형태다. 갯벌에 주벽을 설치한 후 밀물과 썰물의 이동에 따라 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하는 어법이다. 살(箭)은 간만의 차를 이용한 어구로서 육지 쪽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지주를 세우고 촘촘히 발을 두른 함정어구이다. 간만의 차가 센 곳에 설치하여 만조시에 들어온 고기가 간조시에 조류를 따라 나가다 갇히게 되면 잡아올리는 형태다.³³⁾

주벽과 살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로도구로서 『朝鮮水産開發史』에도 “柱木網은 달리 駐木또는 注泊이라고 이른다. 韓末 조기어업의 대표적 漁具이다. 東海岸의 地曳網, 南海岸의 漁帳과 함께 예로부터 朝鮮의 三大漁具라고 불린다. 柱木은 西海岸특유의 海況에 適應하며 발달한 것으로 潮汐의 干滿差異를 이용한 漁具이다.”³⁴⁾로 파악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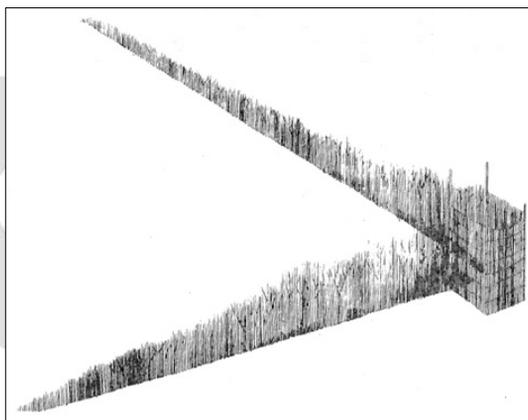
조기잡이의 신화는 어로기술적 측면에서 주벽과 살(발) 어로에 대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임경업 장군이 갯벌에 가시나무를 꽂아서 고기를 잡은 것은 현실에서 주벽이나 어살(발)에 해당하는데, 구전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면모가 반영되기도 한다.

33) 주벽과 어살의 형태 및 어로방법에 대해서는 고광민의 논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고광민, 『조기의 漁法과 民俗』, 『도서문화』3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

34)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116면(고광민, 『조기의 漁法과 民俗』, 『도서문화』 3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 7면에서 재인용).



주목망(『朝鮮水産紙』)



어살(『朝鮮水産紙』)

예전에 임경업 장군이 싸우러 가는데 뱃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머야 부식을 달라고 반찬 없어서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갔데요. 올라가서 장을 가지고 내려오더래요. (조사자 : 장이요?) 장. 반찬해먹을 거. 싼고 내려왔데요. 그래서 여기가 빙장산이예요. (조사자 : 임경업 장군이?) 거기가선 춥뿌리, 춥냉쿨을 끌어다가 그물을 엮어서 밖에다 두니까 거기 조기가 잔뜩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반찬하고, 이양반이 천기를 못봤답니다. 중국 들어가서 싸우러 들어가서 중국 어디 골목에 그러다가 쇠도리께 맞아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³⁵⁾

위의 구술은 임경업장군이 가시가 달린 나무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칩닝쿨이나 짚으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화적 사실과 현실이 일치하는 모양새다. 어민들이 신화적 사실을 현실에 비추어서 재해석하면서 정치망 형태인 주벽과 어살이라는 실제 어획 방법과 유사한 형태로 신화를 변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기잡이신화의 의례적 재현에서 배치기소리가 진행되는 점도 주목된다. 조기를 잡는 과정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①낚소리, ②그물당기는 소리, ③고기푸는 소리, ④배치기소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주목망에서는 ④배치기소리가 불려지지 않거나 두드러지지 않는다.³⁶⁾ 조기잡이 의례를 진행할 때면 으레 배치기소리가 결합되는데, 신화적 사실과 가까운 주목망 어법에서는 배치기소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어로활동의 현장에서 배치기소리가 불려지는 곳은 중선망·안강망, 정선망 등인데, 이러한 어법은 주목망 이후 발전된 어로방법에 해당하다. 이처럼 조기잡이신화는 어로방법과 생업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면서 형상화하며 이것이 의례로서 진행된다.

영등신화는 경작의 신화로서 농경의 사고가 어경으로 전이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짐작된다.³⁷⁾ 앞에서 영등신화의 전승주체를 해녀집단으로

35) 신종원 외, 『한국 해양 및 도서 신앙의 민속과 설화 (현지조사 2 - 서해안)』, 장보고 기념사업회, 2006, 131면.

36) 이경엽, 『서해안의 배치기소리와 조기잡이의 상관성』,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230~231면.

37) 영등신화의 농경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도 다룬바 있다. 송기태, 『어경(漁耕)의 시대, 바다 경작의 단계와 전망』, 『민속연구』 25, 안동대 민속학연구

제시했다. 이 해녀집단은 잠수를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전업 어업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녀들은 어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농사일 전반을 관할하는 존재였다. 제주도의 경우 전통시대부터 남성의 비율이 적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 대부분의 생업활동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필수적이었다.³⁸⁾ 영등신화에서도 영등이 해산물의 씨앗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종자도 가져다주는 존재로 그려진다. 따라서 영등신화에 투영된 어경은 농경적 사고의 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다와 해안가에서 양식어업이 시작된 것은 1세기에 불과하지만, 어촌 주민들은 양식어업 이전부터 갯벌과 해안을 경작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바다에서 경작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갯벌과 갯바위 지역은 ‘밭’으로 불린다. 크게는 해안가와 갯벌을 통틀어 ‘바다밭’, ‘갯밭’이라고도 하고, 채취하거나 수확하는 품종에 따라 ‘미역밭’, ‘톳밭’, ‘바지락밭’, ‘꼬막밭’ 등으로 부른다. 어촌 사람들이 해안가 지역을 ‘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육지의 경작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격적인 양식이 시작되면서부터 밭이라는 용어가 확산된 측면이 있지만, 근래에까지 양식어업이 진행되지 않던 제주지역에서도 해안지역을 ‘밭’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볼 때 갯벌과 해안은 준(準)경작지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도 미역이 많이 자라는 곳을 ‘메역밭’이라고 하거나 자리돔이 많이 잡히는 곳을 ‘자리밭’이라고 한다.³⁹⁾ 물의 밭이 사유화되어서 개인 단위의 일터라면, 바다밭은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의 일터인 셈이다.

영등굿의 과정 중에서 <요왕세경본풀이>와 <씨드림·씨점> 절차는

소, 2012, 90~97면.

38) 이창기, 『인구변동과 제주 여성의 삶』(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주학회, 2010.

39)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31면.

바다 경작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담고 있다. <요왕세경본풀이>는 일반적인 곳 절차의 <세경본풀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세경본풀이>는 세경신에 대한 근본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세 명의 세경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여신으로서 자청비다. 이 신화에서 자청비는 하늘에서 공업을 세우고 이 공으로 ‘열두시만국’과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얻어와 농경신이 된다. 여기서 자청비가 7월 열 나흘 날에 오곡종자를 가져다준다는 점과 백중이 농사에서 중요한 절기라는 점은 <세경본풀이>의 농경기원신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⁴⁰⁾ <요왕세경본풀이>가 <세경본풀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지의 농경신 본풀이를 어업의례인 잠수굿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미역·전복·소라 등이 번식하는 것도 바다의 농사로 보아 바다에도 농신인 세경이 있다는 관념”⁴¹⁾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씨드림·씨점> 절차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다에 해산물 씨앗을 파종하는 모의행위를 하는 점에서 농경적 세계관이 어경으로 전이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등신화에서 나타나는 씨앗의 파종은 농경적 사고의 전이라는 점에서 상상의 경작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양식어업이 발달한 현재는 전복이라 소라의 치패를 해안가에 뿌려서 자연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전통시대에는 바다의 작물을 파종하거나 키우는 일련의 과정이 불가

40)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41)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166면;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의 의례형태와 의미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1, 역사민속학회, 2005.

42) 송기태, 『어경(漁耕)의 시대, 바다 경작의 단계와 전망』, 『민속연구』 25,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2, 90~97면.

능했다. 영등신화의 신화적 사건이 <씨드림과 씨점>이라는 의례 절차를 통해 재현되지만, 의례의 행위는 실제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까지도 온전한 형태의 양식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최근에 들어 해안가에 전복이나 소라 등의 종패를 뿌려서 양식을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영등신화에 나타난 해산물 씨앗의 파종은 실제 경작이나 양식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관념적 모의경작으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농경의 모의경작은 ‘심기 - 기르기 - 수확하기’라는 실제 경작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어로기원신화에 형상화된 ‘어경’은 실제 경작이 행해지지 않던 해안에서 어업집단에 의해 상상 속에 진행된 경작을 의미한다. 영등신화에 나타난 해산물 씨앗 파종은 농경의 모의경작과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 정리하면 영등신화에는 농경과 마찬가지로 어업의 경작을 상상하는 영역, 이른바 ‘어경’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바다의 문화를 문명사적 전개라는 틀에서 바라보면 바다의 문화가 내륙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내륙의 문화변동 추이와 바다의 문화변동 추이를 읽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어로기원신화와 의례도 ‘어획’과 ‘어경’이라는 어업문명의 영역 속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바다의 문명사라는 관점에서 ‘어획’과 ‘어경’을 구분하고, 독자적으로 전승되고 연구되던 조기잡이신화와 영등신화를 비교하여 어로기원신

화의 문명사적 위상과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의 문명기원신화를 농경기원신화와 동일시하는 내륙적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어업문명사적 관점에서 조기잡이신화와 영등신화는 ‘어획’과 ‘어경’을 대표하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어업문명의 전환은 근대어업과 양식업이 도입된 100여년 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어로기원신화에 어민들이 활동하는 생업현장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신화에 내재된 어경에 대한 형상화라든지 어민들의 인식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해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기잡이신화가 지닌 ‘어획’의 성격과 영등신화가 지닌 ‘어경’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조기잡이신화의 의례적 재현은 실제 어로기술 발달과 적절히 조우한 형태로서 자리를 잡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영등신화의 전승주체는 해녀집단으로서 의례적 재현에 있어서도 해조류와 패류의 파종의례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농경적 사고의 전이에 의한 것임을 추론했다. 물론, 해안가의 해조류채취와 패류채취 과정이 경작관념과 경작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영등신화의 기본 토대는 농경에 있다고 보았다.

바다 어업문명의 전환에서 ‘어경’의 사회문화적 파급력은 농경의 그것과는 많이 다를 것으로 짐작한다. 농경은 농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경은 어업의 시작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신석기 이후 전통사회에서는 농업이 국가의 근간산업으로서 9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농경문화는 오랜 시간동안 문화의 주류(Majority, Mainstream)로 기능해왔다. 반면 어경으로 본격적인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실제 어업인구는 전체인구의 2%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어경의 사회문화적 파급력은 농경에 비해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1970~80년대를 기

점으로 양식어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급력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이되어 온 과정을 볼 때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한 어경의 확대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농경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미래 사회가 농경사회로 완벽하게 전이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필자는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이되어 온 문명사가 보여주듯, 어획에서 어경으로 전이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⁴³⁾

본 논의에서 다루는 영등신화는 농경적 사고를 기반으로 경작에 대한 어민들의 신화적 상상을 담고 있는, 이른바 ‘어경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신화적 상상은 실제 어민들의 생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바다의 해안가에 전복과 치패를 똑같은 방법으로 뿌려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화적 사실과 현실의 조우가 영등신화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지만, 신화 텍스트의 변이와 그 안에 담긴 문명사적 전환과 문화변동, 그리고 어민들이 인지하는 해양생태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의 의례형태와 의미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1, 역사민속학회, 2005, 107~139면.
 강진욱, 『동아시아 농경 및 곡물기원 신화와 문화영웅의 존재양상』, 『구비문학연구』 21, 한국구비문학회, 2005, 375~425면.

43) 송기태, 『어경(漁耕)의 시대, 바다 경작의 단계와 전망』, 『민속연구』 25,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2, 109~110면.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334.
- 고광민, 『조기의 漁法과 民俗』, 『도서문화』 3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 3~38면.
- 권태효, 『한국 생산물기원신화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413~436면.
- 김금화, 『김금화 무가집』, 문음사, 1995, 1~438면.
- 김기호, 『신화에 나타난 곡모신 모티프의 성격과 고대 한국 농경문화의 기원』, 『한국사상과 문화』 2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279~308면.
-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09, 53~74면.
- 김재호, 『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57~84면.
- 김중대, 『<주몽신화>의 유희 행동을 통해 본 문화변화양상에 대한 일고』, 『우리문학연구』 33, 우리문화회, 2011, 3~26면.
- 김준, 『조기파시의 기억과 기록』, 『서해와 조기』, 경인문화사, 2008, 153~197면.
- 니승만, 『조기잡이 닻배어로의 변영과 쇠퇴』,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263~289면.
- 문무병, 『제주도의 영등굿』,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241~253면.
- 박중익,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섬 당제의 실상과 할로 모색』,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83~115면.
- 배영동, 『궁중 내농작과 농가 내농작의 의미와 기능 - 궁중풍속과 민속의 관계를 생각하며-』,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99~146면.
- 서종원,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97~122면.
- 송기태, 『양식어업에 따른 생태인지체계의 확장과 ‘해산물 부르기’ 의례의 진화 - 전남 남해안지역 갯제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1, 273~308면.
- 신종원 외, 『한국 해양 및 도서 신앙의 민속과 설화 (현지조사 2 - 서해안)』, 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1~550면.
-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 출판부, 2008, 1~312면.
- 이경엽, 『서해안 배치기소리와 조기잡이의 상관성』,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

- 회, 2004, 215~248면.
-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267~300면.
- 이인화, 『당진 안섬 풍어굿의 연행 내용과 의미』,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313~337면.
- 이창기, 『인구변동과 제주 여성의 삶』(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주학회, 2010, 15~26면.
- 좌혜경·권미선,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 제주학회, 2009, 229~259면.
- 주강현, 『서해안 고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 - 어업생산력과 임경업 신격화 문제를 중심으로 -』, 『역사민속학』 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58~128면.
- 최윤영, 『서해안 배연신굿의 연행양상』, 『한국극예술연구』 28, 한국극예술학회, 2008, 11~42면.
- 하순애, 『바람과 제주도 영등신앙』, 『제주도연구』 33, 제주학회, 2010, 275~302면.
-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 서해해역 下』, 2002, 1~613.
-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1, 한국민속학회, 1969, 117~135면.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신구문화사, 1980, 1~969면.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1~520면.
- 홍태한, 『설화와 민간신앙에서의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 - 남이 장군과 임경업 장군의 경우 -』, 『한국민속학보』 3, 한국민속학회, 1994, 31~52면.
- 홍태한, 『서해안 풍어굿의 양상과 특징』, 『도서문화』 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6, 569~600면.
- 황루시, 『제주영등굿』, 『한국인의 굿과 무당』, 문음사, 1998, 1~310면.
- M엘리아테 저, 이은복 역, 『성과 속』, 한길사, 2005, 1~238면.
- 제레드 다이아몬드 저, 김진준 역, 『총, 균, 쇠』, 문학사상사, 2012, 1~751면.
- 콜린 텃지 저, 김상인 역, 『에텐의 종말』(다윈의 대답3), 이음, 2011, 1~88면.
-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1~530면.
-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 <http://portal.nfrdi.re.kr/>

ABSTRACT

Groundwork for the Cultural Ecology of Fishery Origin Myths and
Mythology so Embodied

-Comparison of Fish Catching Myths with Agricultural Fishing Myths-

Song, Ki-tae

Culture related to the sea focusses on fishing, and specifically ‘fish catching’. With the advent of modern times, however, and the introduction of aquaculture farming techniques, the seas were transformed into cultivation areas in the same manner as on land, in becoming areas of ‘agricultural fishing.’ The whole area of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s of Korea is now farmlands for marine plants and shellfish. In this study, fishery origin myths are compar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fish catching and agricultural fishing.

The concepts of ‘fish catching’ and ‘agricultural fishing’ were first classified from a viewpoint concerning the history of cultivation. The traditionally passed down myth of shell harvesting, and the ‘Goddess of the sea’ myth were researched and compared with the standard status of fishery origin myths and the nature of cultivation history. This was a purposeful effort to break out of the civilization origin myth which is equated with the agricultural origin myth.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fishing culture, the west coast shell harvesting myths and Jeju-do’s ‘Goddess of the Sea myth’ are classic myths concerning ‘fish catching’ and ‘agricultural fishing.’ However, the changeover of fishing culture actually began just one hundred years ago, with the introduction of modern fishing and aquaculture techniques. Viewing writing from this understanding, the truth concerning the cultural shifts viewed through fishery origin myths was ascertained. On

*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basis of these myths, an awareness and embodiment of the inherent 'cultivated sea' was discussed.

The myth of shell harvesting is a myth handed down in west coast fishing villages and by fisherman who catch fish. It tells the story of a general named Lim Kyung Up from the Joseon Dynasty who stuck a thorn bush in a mud flat during a journey to China, to try and harvest shellfish after his food had run out. The myth of shellfish harvesting is offered by the village communities, recited in a ritual, and ceremonially reenacted. This myth of shellfish harvesting is understood to have been adjusted to incorporate changes in fishery techniques.

The 'Goddess of the Sea' myth is the story of Grandmother Yeung-Deung who sprinkled crop seeds and shellfish when crossing the sea to Jeju-do. In Jeju-do, the myth and ceremony is passed down to female divers, and the ceremonial habit of sprinkling seeds in the sea is reenacted for big catches. The 'Goddess of the Sea' myth and attendant ritual is thought to originate from an agricultural shift that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The process of gathering marine plants and shellfish along the shore illustrates the methodology of cultivation and farming, but the original foundation of the 'Goddess of the Sea' myth reveals its connection to agriculture. This is due to the emergence of an aquaculture industry in Jeju-do in recent times.

Key Words fish catching, agricultural fishing, fishery origin myths, shellfish harvesting, belief in the Goddess of the Sea, aquaculture industry

논문투고일 : 2012. 11. 07

심사완료일 : 2012. 11. 28

게재확정일 : 2012. 12. 02